

세틀뱅크, 코스닥 상장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

- ▶ 국내 최초 가상계좌 및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핀테크 선도기업
- ▶ 핀테크 시장 내 세틀뱅크만의 차별화된 경쟁우위점 확보
- ▶ 6월 27일~28일 수요예측, 7월4일~5일 공모청약 후 7월 내 코스닥 상장 예정

<2019-06-05>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핀테크 기업 세틀뱅크 (대표이사 이경민)가 5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
세틀뱅크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1,447,000주 (신주모집: 927,000주, 구주매출: 520,000주), 희망 공모가 밴드는 44,000원~49,000원이며 총 공모금액은 636억 원~709억 원이다. 이에 따라 이달 27일~28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, 7월4일~5일 공모청약을 실시해 7월 내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있다. 상장 주관은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맡았다.

2000년 설립된 세틀뱅크는 국내 최초 가상계좌 및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핀테크 기업이다. 간편현금결제, 가상계좌, 펌뱅킹, 전자결제(PG)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중 주력사업은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다.

세틀뱅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.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등 국내 대다수 페이사의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. 현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제로페이 사업 또한 세틀뱅크가 운영하고 있다. 현재 세틀뱅크의 간편현금결제 시장점유율은 97%로 시장 내 독보적 우위를 선점했다.

세틀뱅크는 가상계좌 서비스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. 2002년 국내 최초 농협 가상계좌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21개 전 은행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시장점유율은 67.54%다.

주력 사업인 간편현금결제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존사업(가상계좌, 펌뱅킹, 전자결제(PG) 서비스 등)의 안정화가 더해져 매출 부분에서도 큰 성장을 보였다.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7.8% 달한다. 2018년엔 매출액 571억 원, 영업이익은 132억 원을 달성했다.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5.3%와 40.4% 증가한 수치다.

세틀뱅크 이경민 대표는 "세틀뱅크는 핀테크 서비스 기획 역량, 금융 IT 전문 인력 보유, 대형기관 운영 노하우, 20년간 無장애 운영 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경쟁우위점을 확보했다" 며 "국내 NO.1을 뛰어 넘어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" 고 포부를 밝혔다.

<참고자료>

[세틀뱅크 IPO 일정 (예정)]

증권신고서 제출	2019년 6월 5일
수요예측	2019년 6월 27일 ~ 28일
청약	2019년 7월 4일 ~ 5일
코스닥 상장	2019년 7월 내

공모주식 수	1,447,000 주 (신주모집: 927,000 주, 구주매출: 520,000 주)
주당 공모가 액	44,000 원 ~ 49,000 원
공모 금액	636 억 원 ~ 709 억 원
예상 시가총액	약 4,077억 원 ~ 4,540억 원